

- [교회 표어] · 은혜충만 · 진리충만
- [교회 3대 목표] ·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 [성도생활의 목표] ·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효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경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F:031-449-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파이어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침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평신도성경대학원 개강예배 드려

2023학년도 평신도성경대학원 개강예배가 지난 6월 7일(수) 오후 안양성전에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권능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며 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과 2학년 재학생 및 교수님들이 참석하여 드려졌다.

개강예배에서 평신도교육국 심연숙 국장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본

문으로 한 설교로 은혜를 끼치며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심연숙 국장은 설교에서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

는 주의 일꾼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평신도성경대학원은 성경학교와 성경대학 과정을 차례로 수료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4학기 동안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성서지리, 예배학, 선교학, 전도학, 신학영어 등 다양한 커리큘럼의 강의가 진행된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송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정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인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달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편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명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미루들길 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침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호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운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7월 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3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삶 가운데 늘 함께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문서는 -

저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스무 살 청년이 된 후 특히 우리 교회 주중예배를 통해 신령한 지식을 쌓고 말씀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설교말씀을 한 구절 한 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주중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 감사의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훈련을 시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20대 초반은 끝 모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스무 살 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주중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생활을 잘하고 또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일에는 수원성전에서, 주중에는 주로 일터에서 가까운 율전성전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 상태로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가에 피어 있는 꽃과 늘어진 나무를 바라보면 그 꽃과 나무들이 마치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느끼게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서,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도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시험공부와 예배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4학년이 되자 졸업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또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야 하는 등 취업과 졸업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주중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학교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로 용돈도 벌어야 합니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제가 교회에서의 예배와 봉사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배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높여 주셔서 바라던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가고 싶어 하던 곳에 들어가고, 대학생활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막내 사원으로 일하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 이겨냈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을 보여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교회를 그릇 판단하거나 복음전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하였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럼 결심하고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넘치게 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예배 드리며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중 모든 예배에 이어서 주일예배까지 집에서 드려야 하니 즐겁게 교회를 오가면서 예배하고 봉사하던 때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더러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를 온라인예배와 병행하여 다시 교회당에서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에 청년봉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방역과 관련된 봉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엄격한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잘 따라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무척 은혜로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

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욱 거룩하게 느껴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 경건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성봉사연합회, 남성봉사연합회 회원들의 봉사하시는 모습이 이전과 다르게 큰 감동과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청년 시절이 지나 장년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 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힘써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향상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수준에서 만족하며 그 동안 머물러 있던 제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고맙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신앙의 각오를 다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야 제 존재의 의미가 있고 제 삶이 헛되지 않게 됨을 잘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며 어떠한 모양의 그릇으로 빚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어떤 훈련을 시켜주실지, 어떤 기쁨 또는 어떤 연단을 허락하실지 내심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더 귀하고 유용하게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며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쉼표를 통해서 경성하여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잇게 하는 자에게는 화보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뱃등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일상용어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낱말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주 듣고 말할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족’은 “발을 잘못 디딤, 행동을 잘못함”이라고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실족’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울무, 함정, 장애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길에 놓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거칠음”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낱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마 13:41), “실족하게 하는 것”(눅 17:1), “거치는 것”(롬 11:9)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다”는 말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다, 이탈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 12: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는 장애물 기록와 흡사합니다. 자칫하면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산재(散在)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실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유희와 환난과 핍박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유희와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신자들의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면 세상적인 모임과 달라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강해 설교”

신자들이면 누구나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고 친절하여서 마치 천사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할만한 일들이 어느 곳에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접하게 되면 그 고통이 환난과 핍박 이상으로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자로 등록한지 오래지 않은 분이 다른 신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실족할 지경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의욕이 사라졌다고 자기 심경을 그대로 목사님에게 토로했습니다. 목사님은 귀담아듣고 위로한 후에 진지한 목소리로 그분에게 “성도님, 시험될 일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기는 한데 당장 그곳으로 가도록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그런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펼쳐서 히브리서에서 다음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까?”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들의 영이 있는 곳이니 천국입니다.”라고 목사님이 대답하니, “아직은 저는 젊는데 세상에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곳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곳을 찾으려만 속히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는 화가 있다’ 하셨습니다.

기독교회의 시조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인하여 편견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을 가장 저급한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점점 널리 전파되면서 유대 사회나 헬라 세계는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를 보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적대하며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난과 욕설에 마음이 위축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통 사람 이상의 품격 있는 모습을 기대하였다가 실망한 사람의 비판은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일반인보다 기독교인에게 더 높고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공평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명예로 여겨야 하며 사실이 그러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해서라기 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① 그리스도인은 절제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양과 품격은 어느 정도 선천적일 수 있으나 배우고 수련함으로써 함양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교육, 훈련하려고 때로는 거

센 말, 책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의 경우가 아닌 이상 순화(醇化)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유창한 말도 품격 없이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심령이 유약한 사람은 모가 나가나 가지 돌친 말 한마디에도 신앙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실족하게 됩니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감당해 냅니다. 하지만 체력이 연약한 사람에게 무겁고 힘든 일을 지우면 감당치 못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나 잘 소화시켜 내지만 심한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섭취를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 면역이 된 사람은 감염이 되어도 발병하지 않으나,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감염되면 발병하게 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여린 사람은 불쾌한 말 한마디에도 낙심하거나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면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지각한 행동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부득이 교회는 그 사람을 책벌(責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화가 임하지 않도록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② 예배에 잘 참석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신자에게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그 신자가 열심을 잃게 하고 점차 믿음이 식어져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다가 실족하게 된다면 실족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인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가 있습니다.

③ 참소하거나 무머를 퍼뜨려 당사자나 이를 듣는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④ 이단, 사이비 집단에 접촉하도록 신자를 유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⑤ 복음진리를 왜곡되고 혼잡하게 가르쳐서 신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름없습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회사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 23:13,15) 하였습니다. 그리고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33)라는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역할과 사역의 방법에 대하여 모두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존귀합니다. 그러니 실족하게 하는 일은 범죄행위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돌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탄의 중 노릇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신자를 실족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러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뱃등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연자 뱃등은 지름이 약 2미터쯤 되는 둥글고 두꺼운 돌을 두 겹 없어서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이는 보통 여인들이 가정에서 손으로 돌리는 작고 가벼운 뱃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뱃돌입니다. 연자 뱃등은 엄장하게 무거워서 가족을 이용하여 돌렸습니 다. 그 용도는 곡식을 가는 것인데 때로는 이방인들이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연자 뱃돌의 구멍에 목을 매게 하여 바다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처형하기도 하고 반대로 반란을 일으킨 갈릴리인들이 헤살을 지지하는 자들을 이 방법으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의 뱃돌에 사람을 묶어 바다에 던져도 가라앉는데 연자 뱃돌에 목을 매어 빠뜨리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연자 뱃돌에 목을 매어 바다에 던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시신을 건져내어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최악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자 뱃등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편이 더 낫다는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성숙하고 강인해야 합니다.

불쾌한 일, 분한 일,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그만둔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지극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옥이 실제하다는 것과 지옥의 실상에 대하여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신앙을 버린다.” 혹은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은 “나는 무슨 이유로,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가기로 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손과 발 혹은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고 눈을 빼어 내버리라” 하셨습니다. 성한 지체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신자들 중에서 손과 발 그리고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실족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곳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불로 서 소금 치듯 할 것이다”(막 9:48, 49) 하였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며 죽음이 피하는 곳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영히 불타는 곳입니다.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뜨거운 불에 탄 피부에 소금이 뿌려지면 그 고통의 강도는 극심하게 됩니다. 지옥에는 비상이나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은 보석금을 내고 나

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찌하던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림이 되는 말과 행동을 접하게 되어 실족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때 노름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같은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노름 화투를 권하자 “미안합니다. 저는 화투를 칠 손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내 손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코 상하는 일이나, 곤란이나, 환난을 당하여도 결코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 11:6)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며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자가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실족이란, 사실은 실족하는 원인이 전적으로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① 예수님을 역사상 훌륭한 예언자, 종교가, 성인군자, 사상가, 순교자로 인정하면서 성자 하나님 이 동정녀의 몸 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역자도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말씀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비과학적이어서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참 신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 하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 신자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실족합니다.

②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고질화 된 주관적 선입관념으로 인하여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서를 읽으며 메시아를 사모하고 고대하였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은 이웃 나라의 침략과 수탈을 당하고 포로 되는 민족적 수난을 여러 번 겪는 동안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시어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고의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고난 받는 메시아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으나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③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율법에 대한 왜곡된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명시된 제사법과 절기들이 메시아의 속죄사역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못박히신 십자가를 거리키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④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에 대하여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⑤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신앙의 주요한 목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관심과 호감을 가졌다가도 현실 생활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소리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도 그

곳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였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성읍과 마을들에 가서 알리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와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과 기이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하여도 비중을 두지 않고 재산에 손해가 난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벳새다 광야로 가시니 그곳으로 사람들이 운집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제공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군중들을 모두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군중들을 흠어 보내셨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어제 모였던 곳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반색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요 6:26)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메시아를 보았어야 했는데 떡을 배불리 먹게 된 것만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있습니다.

죄 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주된 목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실족할 때가 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기대하고 구하는 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에 봉착하게 될 때 의심과 낙심으로 인해 실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실족의 원인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지, 편견, 아집, 욕심, 교만 때문입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는 신자가 있습니다.

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실족하려 하다가도 곧 회복하고 일어납니다.

②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언제나 선하고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③ 당장은 사람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④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재와 실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성경에만 근거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신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서 실족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지언정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